

보도시점 : 2024. 7. 25.(목) 11:00 이후(7. 26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7. 25.(목)

강남·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,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% 향상

- 강남대로 중앙전용차로(32→22분), 명동 삼일대로(32→25분) 운행속도 개선
- 서울역~동탄(62→57분), 강남~용인(50→37분) 등 퇴근길 버스 소요시간 단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대광위)는 지난 5~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% 단축되었다고 밝혔다.

○ 대광위는 지난 5월초,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*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, 5월 16일(11개 노선)과 6월 29일(22개 노선)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하였다.

* △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“강남대로 버스 열차 현상”(23.5월), △“명동입구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란”(24.1월) 등 이슈화

○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*한 결과,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,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시행 전후 공휴일이 없는 연속 2주간의 평일(화·수·목) 총 6일간을 비교
- 시행전: 4월 16, 17, 18, 23, 24, 25일 / 시행후: 7월 2, 3, 4, 9, 10, 11일

□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, 공항 리무진 등이 신사→양재 구간에 몰리면서, 버스가 일렬로 정체되는 ‘버스열차현상’이 빈번했으나, 이번 조정 후 혼잡이 완화되며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(32분⇒22분, △31%)되었다.

<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사→양재 구간 소요시간 (단위: 분) >

시간대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
시행 전	19	22	23	23	22	21	21	20	21	22	22	23	27	32	29	24	24	22
시행 후	20	21	23	22	21	20	20	20	20	21	21	22	22	22	21	22	22	21
증감	0	-1	-1	-1	-1	-1	0	0	0	-1	-1	-1	-5	-10	-8	-2	-2	-1

○ 이는 인천·화성(동탄) 등에서 오는 15개 노선의 정류장을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하고, 용인발 5개 노선은 오후시간 대 운행노선을 역방향으로 전환(강남대로 중앙차로 양재→신사방향 운행)하면서 신사→양재 간 중앙차로를 지나는 버스 통행량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.

○ 한편,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와 역방향 운행으로 조정된 노선들도 각각 최대 5분, 16분* 단축되는 등 강남일대의 버스 운행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(구간) 신논현역 부근(기존주류성빌딩→조정신논현역 정류장) → 청계산입구역 부근(경부고속도로)

□ 명동 삼일대로도 11개 노선의 정류장을 가로변으로 전환(‘명동성당’ 정류장 신설)하고 2개 노선*의 회차 경로를 조정(남산 1호 터널 → 소월로)한 결과, ‘서울역→명동입구→남산 1호 터널→순천향대학병원’ 구간의 운행시간이 최대 7분 단축(32분⇒25분, △22%)되었다.

* 두 노선의 ‘서울역→소월로→순천향대학병원’ 구간 퇴근시 소요시간 최대 12분 단축
- 단, 명동(롯데백화점) 탑승시 서울역 우회로 소요시간이 일부 증가하여 모니터링 중

< 서울역→남산1호터널→순천향대학병원 구간 소요시간 (단위: 분) >

시간대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
시행 전	15	17	21	24	21	23	24	28	29	30	29	32	30	25	23	23	19	15
시행 후	14	16	19	23	21	20	20	24	25	24	26	25	27	20	18	18	16	15
증감	0	0	-2	0	0	-3	-3	-3	-3	-6	-3	-7	-3	-5	-5	-4	-2	0

□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“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의 혼잡이 완화되고,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”고 평가하며,

○ “함께 보조를 맞춘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등 지자체와 운수회사는 물론 적극 협조해주신 이용객분들께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	책임자	과 장	배소명 (044-201-5065)
		담당자	사무관	황성필 (044-201-5069)
		담당자	주무관	이광수 (044-201-5066)